

어울림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떻게 학생 예방 역량 변화로 이어지는가: 학교문화 책임규약 교사 인지 역량을 중심으로

모상현 선임연구원
전원지 전문연구원

요약¹⁾

- 본 연구는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 사업이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학교 간 학교폭력 예방 효과의 차이가 교사의 책임규약 인지 역량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요인 간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함.
- 연구 수행은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교사의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 차이를 비교함. 이를 위해 전국 운영학교 교사 및 학생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인식, 학생 만족도 및 어울림프로그램 관련 역량 수준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함.
- 분석 결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지와 이해 역량을 증진 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1) 책임규약을 어울림프로그램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프로그램 효과를 촉진하는 핵심 실행 환경으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2) 두 제도를 연계한 운영 지침과 지원 체계를 정책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함. 특히 3) 교사의 책임규약 인지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4) 성과 관리 역시 운영 여부 중심에서 교사의 인식과 실행 수준을 포함하는 실행 환경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5)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단기 성과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교사 인식과 실행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학교문화 개선 전략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지속성과 확산 도모를 제안함.

1) 본 블루노트는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한 연구과제인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프로그램 및 책임규약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자료에서 일부 발췌·요약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어울림프로그램²⁾과 학교문화 책임규약 사업³⁾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학생 예방 역량 차이가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역량 수준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함.
 -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이 전국 학교에 도입·확산되었으나,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프로그램 효과 차이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음(교육부, 20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 기존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과 연구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현황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교 간 효과 편차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특히 책임규약 정책이 더해진 이후, 어울림프로그램이 학생의 실제 행동 변화와 학교문화 인식 개선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됨.
 - 학교 맥락에서 교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핵심 환경을 구성하는 주체로 기능하며, 어울림프로그램 역시 교사의 해석과 운영 방식에 따라 학생 경험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교육 변화 관점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Fullan, 2007).
 - 이에 본 연구는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 각 제도의 운영 및 효과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함. 특히 두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분절적으로 작동하기보다,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한 인지 역량을 매개로 상호 연계되어 작동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연구 영역을 설정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25년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프로그램 및 책임규약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효과를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가 아닌, 교육 효과가 작동하는 과정과 조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프로그램은 학생의 공감 능력, 의사소통 역량, 갈등 해결 능력 등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참여형·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학생 간 긍정적 상호작용과 관계 경험의 질적 개선을 주요 교육 목표로 함.

3)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2023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학교 구성원이 공동으로 합의한 규범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학교 내 관계 형성과 생활지도의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문화 정착을 지향함.

- 특히 교사를 중심으로 한 환경 요인이 학생의 행동 변화와 학교문화 인식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실태와 효과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역량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 효과 작동 구조를 중심으로 두 제도의 연계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정책적·실천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분석틀은 어울림프로그램 운영이 학생의 어울림프로그램 관련 인식 및 만족도, 어울림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기본 구조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한 인지 역량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둠. 이를 통해 동일한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하에서도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수준에 따라 학생의 역량 변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한 교사의 인지 여부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인지 집단과 미인지 집단 간의 만족도(참여·효과·지원) 차이를 검증함.
 - 둘째,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한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라 그 차이를 비교함.
 - 셋째, 학생의 어울림프로그램의 역량을 분석하고, 학생의 어울림 역량이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
 - 넷째, 학생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을 분석하고,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함.
- 이러한 연구 내용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교사의 제도 인식과 결합된 실행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탐색함.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프로그램 및 책임규약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설문조사의 경우 초·중·고 총 681개교, 교사 2,236명, 학생 36,834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실시함.
-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 측정
 -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는 교사 대상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함. 본 연구에서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를 인지 집단으로,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및 ‘③ 이번에 처음 들어본다’라고 응답한 교사를 미인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함. 해당 문항은 책임규약에 대한 교사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인지 지표로 설정됨.
- 학생의 어울림프로그램 역량 측정
 - 학생의 어울림프로그램 관련 역량은 학생 대상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함. 구체적으로는 1.사회적 역량(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2.정서적 역량(자기존중감, 감정 조절), 3.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4.사이버폭력 예방 역량의 네 영역으로 구분함.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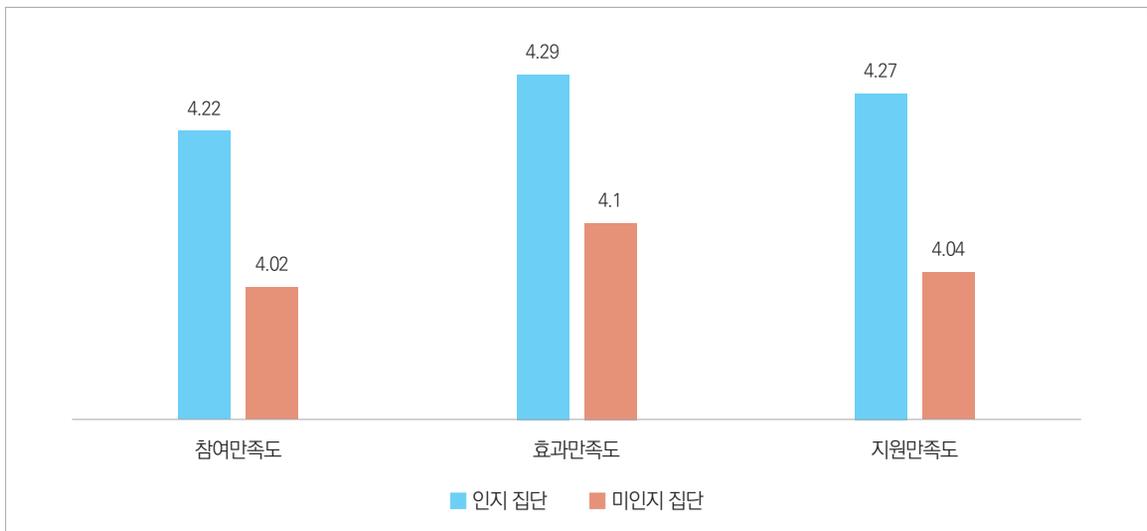
3. 연구결과

▶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어울림프로그램 만족도 차이

- 분석 결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책임규약 인지·미인지 전체 집단의 어울림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23점($t=4.707$, $p<.001$)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라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표1]과 같이 확인됨. 참여 만족도($t=4.209$, $p<.001$), 효과 만족도($t=4.057$, $p<.001$), 지원 만족도($t=5.227$, $p<.001$) 등 모든 하위 영역에서 책임규약을 인지하고 있는 교사 집단이 미인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임($p<.001$). 특히 지원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책임규약에 대한 인식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학교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체감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이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이 어울림프로그램을 학교 정책과 연계된 제도로 인식하게 하는 핵심 매개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표 1. 교사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어울림프로그램 만족도 차이

〈교사〉 만족도	총계 (n=2,039)		인지 (n=1,731)		미인지 (n=30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만족도	4.23	0.72	4.26	0.72	4.06	0.71	4.707***
참여 만족도	4.19	0.76	4.22	0.76	4.02	0.76	4.209***
효과 만족도	4.26	0.76	4.29	0.76	4.10	0.73	4.057***
지원 만족도	4.24	0.73	4.27	0.73	4.04	0.73	5.227***



▶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학생 어울림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차이

- [표2]는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라 학생의 어울림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임. 분석 결과, 전체 인식 및 만족도(M=3.81)에서 인지 집단(M=3.84)이 미인지 집단(M=3.70)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t=13.627, p<.001). 즉, 교사의 책임규약 인지 여부는 학생의 어울림프로그램 인식과 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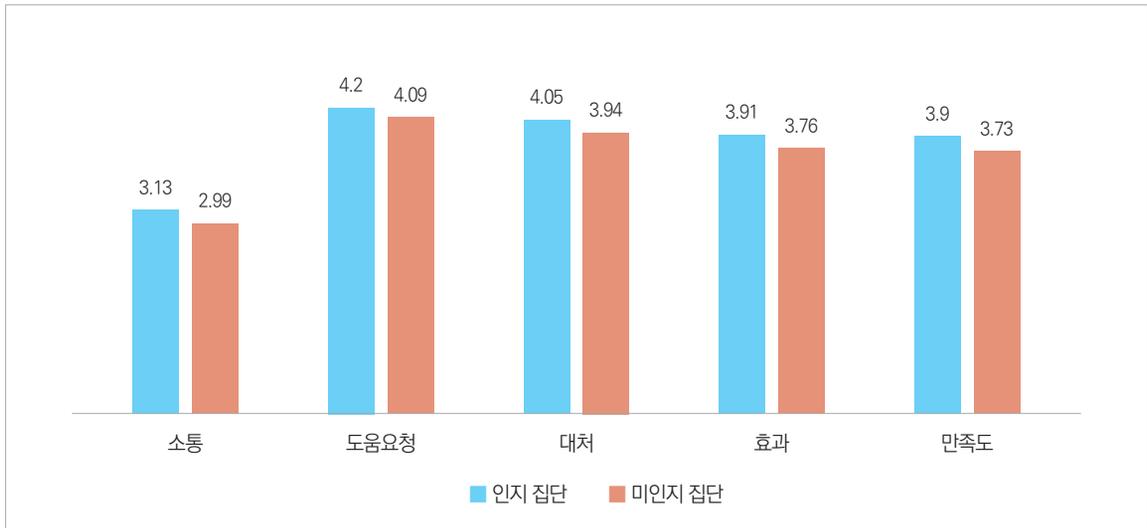
-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또래 및 교사와의 소통, 학교폭력 발생 시 도움 요청 의향,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인식, 프로그램 효과 및 전반적 만족도 등 모든 문항에서 인지 집단이 미인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 집단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또래 및 교사와의 소통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나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의향 또한 더 높게 나타남. 더불어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인식과 어울림프로그램의 예방 효과 및 전반적 만족도 역시 인지 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는 교사의 책임규약 인지가 학생의 어울림프로그램 경험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 예방 관련 태도와 행동 변화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2. 학생_어울림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차이

〈학생〉 어울림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총계 (n=36,834)		인지 (n=29,996)		미인지 (n=6,838)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학생 어울림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3.81	0.76	3.84	0.76	3.70	0.76	13.627***
소통	친구들과 예전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다.	3.06	1.21	3.09	1.21	2.96	1.16	8.288***
	선생님과 예전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다.	3.14	1.19	3.17	1.20	3.01	1.17	10.348***
도움 요청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4.15	0.87	4.17	0.87	4.06	0.87	9.387***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4.21	0.86	4.23	0.86	4.11	0.88	10.120***
대처	학교폭력 상황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방어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4.03	0.90	4.05	0.90	3.94	0.90	9.430***
효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4.24	0.84	4.26	0.83	4.12	0.88	12.30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캠페인, 동아리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3.54	1.11	3.56	1.12	3.43	1.10	8.441***
	어울림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86	0.99	3.90	0.97	3.72	0.99	13.327***
만족도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에 만족한다.	3.86	0.97	3.90	0.98	3.73	0.99	12.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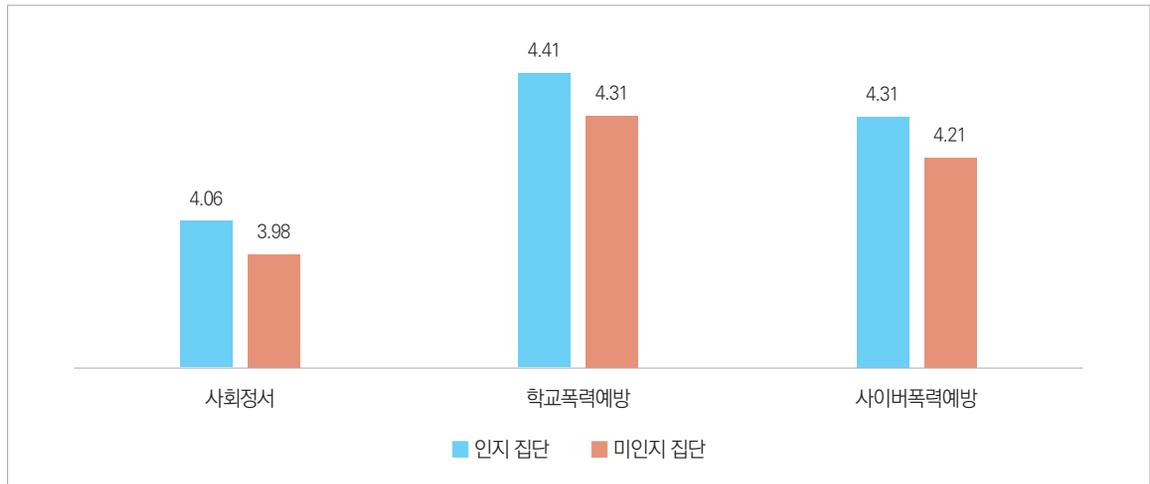


▶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학생 어울림 역량 차이

- [표3]은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학생의 어울림 역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분석 결과, 전체 학생 어울림 역량(M=4.20)에서 인지 집단(M=4.22)이 미인지 집단(M=4.1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보임($t=11.029$, $p<.001$).
 - 하위 영역별로는 사회정서 역량(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예방 역량(학교폭력 인식,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사이버 자기조절, 사이버상의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사이버폭력 인식, 사이버폭력 대처방안) 등 모든 영역에서 인지 집단이 미인지 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한 교사의 인지가 학생의 공감 능력, 의사소통, 갈등 해결, 감정 조절 등 핵심 사회정서 역량뿐 아니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상황에서의 인식과 대처 역량 강화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함. 다시 말해, **책임규약은 단순한 규범 제시 차원을 넘어 학생의 실질적 역량 형성에 기여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임.**

표 3. 학생_어울림 역량 차이

〈학생〉 어울림 역량		총계 (n=36,834)		인지 (n=29,996)		미인지 (n=6,838)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학생 어울림 역량		4.20	0.63	4.22	0.63	4.13	0.65	11.029***
사회정서	공감	4.02	0.80	4.04	0.80	3.95	0.81	8.028***
	의사소통	4.11	0.75	4.12	0.75	4.05	0.76	7.610***
	갈등해결	4.09	0.77	4.11	0.76	4.02	0.78	8.581***
	자기존중감	3.97	0.95	3.99	0.95	3.90	0.95	6.846***
	감정조절	4.03	0.82	4.05	0.82	3.97	0.83	6.725***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인식	4.51	0.67	4.53	0.66	4.44	0.71	9.809***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4.26	0.76	4.28	0.76	4.17	0.79	10.564***
사이버 폭력 예방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4.32	0.71	4.34	0.70	4.23	0.74	10.438***
	사이버 자기조절	4.28	0.74	4.30	0.73	4.19	0.78	10.040***
	사이버상의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4.19	0.79	4.21	0.78	4.11	0.81	8.782***
	사이버폭력 인식	4.42	0.71	4.44	0.70	4.33	0.75	11.168***
	사이버폭력 대처방안	4.26	0.74	4.28	0.73	4.19	0.77	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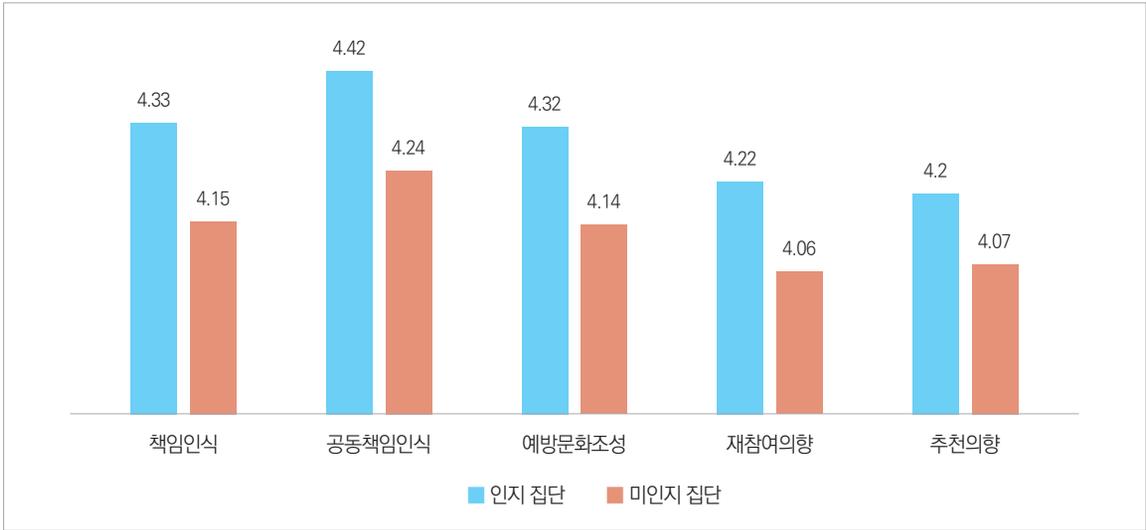


▶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학생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 만족도 차이

- [표4]는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른 학생의 책임규약 활동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임.
 - 분석 결과, 책임규약 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찰하게 되었다는 인식,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예방 문화 형성에의 기여뿐 아니라, 향후 참여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에서도 인지 집단(M=4.30)이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냄($p < .001$).
 - 이는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에 따라 학생이 해당 활동을 보다 의미 있게 경험하며, 책임규약 활동이 학교문화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표 4. 학생_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 만족도 차이

〈학생〉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 만족도	총계 (n=36,834)		인지 (n=29,996)		미인지 (n=6,838)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책임규약 활동 만족도	4.27	0.75	4.30	0.74	4.13	0.81	9.790***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을 통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4.30	0.80	4.33	0.78	4.15	0.86	10.129***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39	0.74	4.42	0.73	4.24	0.81	10.336***
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29	0.82	4.32	0.81	4.14	0.87	10.191***
내년에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을 실시한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4.20	0.89	4.22	0.88	4.06	0.93	8.524***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학교문화 책임규약활동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	4.18	0.90	4.20	0.90	4.07	0.92	6.980***



-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여부는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인식, 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 어울림프로그램 관련 역량,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 만족도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인지한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학생 역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인식·태도·역량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실행 주체의 인식과 이해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교육 효과가 학습 내용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실행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Baldwin과 Ford의 훈련 전이 모형과 일치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함. 본 연구에서 교사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인지 역량은 어울림프로그램이 학생의 인식과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실행 환경 요인으로 기능하며, 프로그램 효과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즉, 학교문화 책임규약이 단순히 문서화된 규범이나 행정적 절차에 머무르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 주체인 교사의 인지와 실행을 매개로 어울림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학생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함.

4. 정책제언

▶ 프로그램 효과성 구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교사에 대한 중요도 인식

- 학교 맥락에서 교사는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실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적용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함. 교사의 이해 수준과 운영 방식,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학생 경험으로 전환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교사 역량은 프로그램 내용을 대체하는 요소가 아니라,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중요 매개 요인으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음.

▶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성에 기반한 상호작용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는 단순한 참여 여부나 만족도 수준을 넘어, 교사와 학생 간의 일상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행동과 태도, 학교생활 경험의 변화로 실제 구현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사가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생들의 실제 관계 경험과 학교문화 인식으로 내면화·정착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이는 교육 효과가 일회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교사-학생 관계를 매개로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시사함.

▶ 프로그램 효과 제고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포함한 외적 지원 체계 확장 필요

-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의 정교화와 함께, 이를 실행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사 대상 전문 연수, 현장 중심의 지원, 실행 경험 공유 등은 교사가 프로그램을 학교 맥락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 이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과 확산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

▶ 교사 중심의 책임규약 인지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연계 운영 전략 필요

-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도입을 넘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내와 연수, 그리고 학교 간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책임규약은 어울림프로그램 운영의 부수적 배경 요소가 아니라, 교사가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실행 환경 요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 학교폭력 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 시에는 교사의 책임규약 인지 수준을 고려한 운영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 내용과 실행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예방 교육적 접근 필요

- 어울림프로그램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통의 교육 내용과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임. 그러나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학교별 효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는 내용 자체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실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 요구됨.

참고문헌

국내 문헌

교육부. (202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2025).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외 문헌

Baldwin, T. T., & Ford, J. K. (1988). Transfer of training: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Personnel Psychology*, 41(1), 63-105.

Kirkpatrick, D. L., & Kirkpatrick, J. D. (1996).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Blume, B. D., Ford, J. K., Baldwin, T. T., & Huang, J. L. (2010). Transfer of training: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6(4), 1065-1105.

Fullan, M. (2007).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4th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